

## 남북한 사회통합 : 일상성과 문화의 차원

유 철 인\*

권오기 통일 부총리는 (1997년 5월) 13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 모금활동과 관련해 "일부 단체들이 불법적인 거리모금을 벌이는 등 과열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재야단체의 불법적인 대북 지원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1997년 5월 14일자 3면 기사의 일부)

이 행사 [한겨레신문사와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가 1997년 5월 14일 개최한 '북녘 어린이에게 쌀을'이라는 행사]를 막으려고 통일원이 내놓은 이유는 웅색하기 그지없다. 한겨레신문사에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언론사의 대북 지원은 북한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군비 확충과 체제 선전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한다는 국내외의 우려를 감안할 때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1997년 5월 14일자 사설의 일부)

나는 남북이 하나가 되었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사람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세대이면서도 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이 내면화되어 아직도 적색공포(red complex)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sup>1)</sup> 또한 분단구조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남한만이 유의미한 의미영역이 되어버린 대다수 남한사람의 하나이다. 개인적으로 북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감정적 민족주의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지도 않다.<sup>2)</sup> 남북대립이라는 분단체제의 고착화를 사회통합의 기조로 삼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어린이를 위한 통일이야기 책에는 남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요? 이런 구분은 바른 구분이 아니랍니다.

남한의 정식 이름이 대한민국인 것처럼 북한의 정식 이름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도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을 굳이 구분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국가,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이장희 1995: 22)

나는 이런 식의 통일교육을 받아 보지 못한 세대의 사람이다. 위의 인용한 글에서 보면, 남북한을 분명히 두 개의 국가로 쓰고 있다. 또한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내가 굳이 통일교육이라는 형태의 교육을 받았다면,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국가라는 것을 배운 정도이다.

2) 물론 통일의 염원은 월남민이나 이산 가족의 몫이라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조형 1996:36). 그러나 북쪽에

있던 지배층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민족과 민중의 이름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1980년대식의 통일지상주의에 물들어 있지도 않다. 결국 나는 통일운동이나 통일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상황속에서 통일운동이나 통일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sup>3)</sup>

그러면서도 나는 신문에 나오는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아프리카의 난민들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읽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마치 언젠가 자신의 반쪽을 만나게 되리라는 낭만적 사랑의 열망과 같은 형태로 통일에 대한 열망”(조혜정 1996: 59)이 많은 사람들의 정서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세에 의해 반쪽으로 쪼개진 것을 우리 힘으로 원래대로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정서적·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는 당위적 측면으로 통일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적 측면인 분단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할 우려를 안고 있다.

남북분단은 “분단상태를 유지해가야 할 두 개의 사회형성을 우리에게 강요”(이효재 1979: 261) 하여, “이미 남한, 북한 사회는 각각 독립되고 자율적인 사회단위가 되어버렸고, 그 각각이 각 개인에게 유의미한 의미영역이 되어버렸다”(김진균·조희연 1985: 421).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남북한의 통일이란 두 개로 갈라진 하나의 ‘민족’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근대 국민국가’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름’아래 통합되는 것이다. 민족과 근대 국민 국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한국사를 배우면서, “신라도 우리나라인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란 우리민족을 가리키는가, 근대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상상의 공동체”(Anderson 1991)인 민족국가를 가리키는가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질 것이다. 결국 민족과 근대 국민국가와의 차이는 통일에 대한 민족적 정서와 국가간의 정치체제의 통합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지금까지의 남북통일 논의는 민족통일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을 주로 정치통합의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남한과 북한의 정부의 시각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질 수밖에 없는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보고 있다(조형 1996: 34).<sup>4)</sup> 그러나 남북통일을 사회통합의 과

---

고향과 친척을 두고 온 이들은 통일에 대한 집념이 남들보다 강할 것이다. 아니면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향수를 통일에 대한 집념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며칠 전 돌아가신 고향이 개성인 나의 처모부님이 북녘이 바라다 보이는 강화도에 묻히셨다는 사실은 월남민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3)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운동, 통일과정에 일반 국민으로서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참여해 온 것이 아니라, 통일 추진 목적보다는 통일을 주제로 한 국내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 동원된 경험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조형 1996: 33).

4) 오수성(1996: 116)은 갈등의 해결양식을 분배적 해결양식과 통합적 해결양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남북통일은 갈등의 통합적 해결양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배적 해결양식은 갈등 당사자들이 분배되는 전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대방의 이득이 곧 자신의 손실로 나타나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 이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누가 힘이 센가’의 힘의 대결이나, ‘누가 옳은가’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통합적 해결양식은 갈등 당사자들이 분배되는 전체 자원을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양쪽에 돌아가는 전체 자원을 보다 크게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갈등 당사자간에 협조적 관계가 형성되어, 서로가 이기는 넌 제로 섬게임이 된다.

정으로 보고, 이를 일상성과 문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통합이란 남북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남북이 하나로 통합된 사회라는 인식을 갖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교훈은 정치체제의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을 합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이다(정유성 1996). 1993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독지역 주민의 22%, 동독지역 주민의 11%만이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는 동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서독지역 주민의 71%와 동독지역 주민의 85%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별개의 독일인들로 생각하고 있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지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을 보면, “서독인들은 구동독지역을 식민지 형태로 정복했다.” “서독지역은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서독인들은 복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등이다. 동독지역에 대한 편견은 “구동독 주민들은 서독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원하는 반면 구동독에서처럼 일하려 한다.” “구동독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서독 수준의 노동성과를 낼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등이다(김학성 1994: 191-192, 서재진 1996: 84-85에서 재인용).

베트남의 통일 정부도 사회재편 과정에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 북쪽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 통적으로 가난하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쪽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이 썩은 사람들과고 생각해 왔다. 이에 반해서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 쓸데없이 완고한 사람들과고 반박해 왔다. 남쪽 사람들은 민족이 통일된 국가의 패전 시민이 되었고, 피해의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북쪽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날지 모르므로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거래를 위한 술자리에서 보면, 북쪽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군림의 자세를 보이고 남쪽 사람은 더더욱 눈치를 보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전경수 1996: 139-140). 통일후의 동서독 사람들이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베트남의 남북간의 지역감정 문제는 사회와 문화와 사람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서로 다른 의미의 영역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되는 남과 북의 사회통합이라는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인 논의와 실천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학문적으로는 우선 현재의 우리(남한)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는 연구와 통일 후의 사회통합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 시대 사회구조의 성격을 어떻게 특징지었으며 이로써 형성된 우리의 의식상태, 가치관 및 인간관계나 사회행동, 즉 모든 사회적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이효재 1979: 253). 1948년에 일어난 4·3의 피해 경험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분단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한 예가 될 것이다.

통일 후의 사회통합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적인 연구로는 월남민이나 탈북자나 조선족들이 남한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통일 후의 상황을 통일된 민족이라는 신화를 가지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게 되는 문화접변의 과정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무엇보다도 ‘다름’에 대한 포용과 관용을 키우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확대·확보하자”라는 논리는 오히려 문화적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조혜정 1996)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남북한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 차이를 우열의 문제로 서

열화할 수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집착은 배타성과 획일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재일교포, 사회주위권에서 온 조선족(연변교포), 한국계 미국인 등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부터 사람의 통일에 대한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sup>5)</sup> 또한 각자의 일상생활에서부터 통일연습은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에는 공허한 이념논쟁으로 4·3을 겪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훌륭한 통일연습이 될 것이다.

---

5) 지난 3월에 일본 쓰쿠바 대학에서 열린 이민민족집단에 관한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서도 보면, 일본이나 중국 출신의 이민민족집단들에 관한 분과에서는 일본적인 것이 무엇이고, 중국적인 것이 무엇인가가 그리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는데, 한국 출신의 이민민족집단에 관한 연구에서는 무엇이 한국적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같은 민족이라도 남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데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니까 같아야 한다는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진균 1983 한국사회학, 그 沒역사성의 성격. 『한국사회연구』 1: 87-107. 한길사.
- 김진균·조희연 1985 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변형윤 외 공저, pp. 397-436. 도서출판 까치.
- 김학성 1984 통일문화연구의 방향: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통일문화연구(상)』,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통일연구원.
- 민성길·전우택 1996 '사람의 토일': 정신의학적 접근. 『통일사회로 가는 길』 송자·이영선 편, pp. 72-110. 오름출판사.
- 서재진 1996 통일 한국의 사회문제 및 사회갈등.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김수곤 외 공저, pp. 61-91. 미래인력연구센터.
- 오수성 1996 통일 한국과 심리적 화합. 『통일이후의 사회와 생활』, 김수곤 외 공저, pp. 93-119. 미래인력연구센터.
- 이장희 1995 『나는야, 통일 1세대』, 천재교육.
- 전경수 1996 베트남 통일과 우리.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편, pp. 133-149. 또하나의 문화 출판사.
- 정진경 1996 문화 이해지: 통일과 심리적 화합.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편, pp. 31-44. 또 하나의 문화 출판사.
- 조 형·박명선 1985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변형윤 외 공저, pp. 145-168. 도서출판 까치.
- 조혜정 1996 남북통일의 문화적 차원: '북조선'과 '남한'의 문화적 동질성·이질성 논의와 민족주의·진보주의 담론. 『통일사회로 가는 길』, 송자·이영선 편, pp. 29-71. 오름출판사.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ition. New York: Verso.